**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가복음 6장 27-38절>**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1896년 미국에서 초판이 발행된 후, 전세계 종교분야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 있습니다. 찰스 M. 쉘돈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맥스웰 목사는, 일자리를 잃고 처자식까지 잃은 후 거리를 헤매던 한 인쇄공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겪습니다. 사람들의 거듭된 냉대와 무관심 속에 지쳐 쓰러져 죽어가면서 그 인쇄공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절규하듯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일 이후 맥스웰 목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삶의 매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기로 다짐합니다. 이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도전하고, 이에 자극받은 교인들은 그로부터 1년간을 그렇게 살아보기로 작정합니다.

신문사 사장 노먼 씨는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싣지 않을 것 같은 기사를 신문에 내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로 인한 비난과 손해를 감수해 나갑니다. 교회 성가대원 레이첼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 끝에, 유명 오페라단 입단 대신에 가난한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철도공사 현장소장 파워즈 씨는 자신의 회사가 법을 몰래 어겨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당국에 의뢰한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는 이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자신도 예수님이라면 찾아가셨을 법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며, 작년 9월에도 설교본문으로 택한 적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27절에 보니까, **‘듣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다고, 혹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귀를 열고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중하여 듣고, 또 들은 것을 실천하는 일은 그 말하는 이에 대한 신뢰를 전제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이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라 부를 정도의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게 ‘원수’라 여겨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겨질 정도의 무언가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당장 좋아하는 감정이 들 리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가 잘 되길 바라며 행동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좋아하게 됩니다. 이 원수 사랑의 실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태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 할 때, 우리는 실망치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십니다. 내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을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23:34)

이어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행한 그대로 되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속옷까지 내놓으라 하는 사람, 한번의 무례함을 넘어 계속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NIV 영어성경은 이 구절을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로 번역합니다. 누가 내게 구하든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가 내 것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을 때, 그거 빨리 갚으라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지고 바로 갚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다려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이 31절 말씀 속에 포괄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남에게 좋은 대접 받길 바란다면 먼저 남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그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내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그에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바라는대로 다 해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그것이 내가 보기엔 정말 그를 위하는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가 바라는대로 내가 저주받길 바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 대한 그의 모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그를 위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한숨이 쉬어지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해줄 수 있으며,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한가? 어떻게 나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댈 수 있으며, 어떻게 내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달라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게 구하는 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줄 수 있으며, 어떻게 내 것을 가져가고 안 주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역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어느 시대에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소리없이 이 말씀을 실천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죄인들’이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먼저 받은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받은 사랑 안에서, 내게 잘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해줄 수 있고, 그 받은 사랑 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되받길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을 이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는 매정하신 분이길 바라지만, 그런 내 일시적인 바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조차도 그분의 나라에 초청하신다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의 하나님, 심지어 내 ‘원수’의 하나님도 되시며, 그 유한한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처럼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됨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늘엔 상급을 쌓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비로운 삶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이 자비의 실천과 관련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바로, ‘비판’과 ‘정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판적 사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의 비판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쪽의 비판은 보통 다른 쪽의 비판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은 곧잘 정죄로 이어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곤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과 정죄를 삼가는 일은 이처럼 비판과 정죄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 하시는 자비의 실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용서’와 ‘베풂’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큰 빚을 십자가 은혜로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빚지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라”**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남에게 후히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놓으라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한 헤아림이 후에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하실 헤아림이 되리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의 크기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도로 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며 후히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분명 오늘 말씀처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에 대한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상대가 내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그에게 해주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헤아림을 다른 이를 향한 나의 헤아림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후히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